

#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2차 폭력”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3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의 '미야크를 빌려 드립니다'에서 정동영 대표와 개성공단입주자 대표들과 민주평화당-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결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최근 일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명단 공개는 2차 폭력”이라며 반박했다.

정동영 5·18역사해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5·18 기념공원 벽면에는 이미 대부분의 유공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 민주평화당 “기념공원에 대부분 새겨져 있어” “재검증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 물려는 속셈”

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결국 이들의 속셈은 모든 신상정보를 들여다본 후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5·18 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태극기부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려고 약속한 듯 요구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데 왜 숨기느냐고 따지는 태도에선 비아냥 거림이 느껴진다며 “지난 39년 동안 역사와 사실 왜곡, 근거 없는 비방으로 괴롭히다가 이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훈처가 관리해온 유공자 명단 조차 믿을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놓는 그 뻔뻔함에 경악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이런 지저분한 정치 싸움을 생각인가”라고 했다. 장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도 보이지 않는 한국당의 일부 전·현직 의원들의 후안무치를 확인한다며 “그들이 태극기부대와 하나의 몸통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정의당 “한국당,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스스로 불러 와”

이정미 “기득권 정당이 훔쳐간 민심 돌려주자는 것”

정의당은 27일 선거제 개혁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최근 선거제 개혁안 지정에 대해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을 불러온 것은 한국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해 국회 개혁 입법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수당·징계·국회활동 등을 의원 셀프결정 방식 3법을 선거법 개혁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기존 선거제에서 한국당 등 기득권 정당이 부당하게 훔쳐간 민심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2중대 같은 무례한 말로 폄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의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법 개정 등을 같이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는데, 권력구조 개편은 지난해 12월1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과 병행처리하겠다고 직접 사인까지 한 사안”이라며 “한국당은 선택적으로 기역하고 말 바꾸기를 습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이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한국당이 지난 2개월 동안 시간끌기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이 논의될 일조차 없었다. 한국당은 5당 합위에 기초해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당론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윤소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대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을 불러온 것은 한국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공수처법 등에 대해 국회 개혁 입법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수당·징계·국회활동 등을 의원 셀프결정 방식 3법을 선거법 개혁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부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측의 발언에 대해 “이무리 정략적이고 계산된 발언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 먹는 하마는 특권과 기득권에 집착하고 본분을 망각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더구나 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을 입에 담은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졸렬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 부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한국당이 내딛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마지막 노력이다. 민생과 개혁에 대한 제1야당의 집요한 방해가 없다면 패스트트랙을 어렵게 추진할 이 유도 없다.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기만’에서 빠져나올 때 새로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홍익표 “하태경, 논란 만들어 몸값 올려...그렇게 하면 안돼”

“역이고 싶지 않아...바른미래 소수정당” 비하 발언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대 폼페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20대에 대해 신(新)나치라는 표현은 전혀 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하태경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하태경 의원과 답답 자리를 마련하면 나올 것냐고 묻자 홍 대변인은 “그 사람과 자주 엮이는 게 좋지 않은 게 소수 정당이다. 저는 1당의 수석대변인이다”라고 바른미래당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어준씨가 그쪽도 최고위원이다 라고 하자 홍 수석대변인은 “그래도 미니정당이고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그분이 자꾸 뭔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인 나쁜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하게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

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취재진과 만나 “(전 정권인) 그 당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땠나. 아마 9시 뉴스만 봐도 알지 않나. 당시 10년 전과 지금 어떤 게 다뤄지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지 다 알 것이다. 20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관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주제는 갑자기 유럽사태 등에서 왜 젊은 세대 일부가 신나치나 보수화됐는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던 하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청년들의 건전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유럽의 신나치까지 거론하는 극단적 선동을 했다”며 “청년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면서 신나치까지 거론한 것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도저히 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당일(15일) 함께 한 토론회장에서 듣고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신나치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